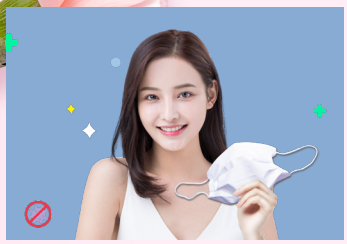
통권 No.65 2021년 5/6월호

CNP 차앤박피부과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CNP CLINIC

찰나의 순간
탈(脫)마스크에 주목하다



CNP STORY

차앤박피부과 브랜드 병원으로서의 품격
광주 차앤박피부과



CNP NEWS

차앤박피부과
이모저모

탈(脫)마스크 당신의 피부는 준비되었나요?

찰나의 순간 탈(脫)마스크에 주목하다



코로나19의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았는데 최근 백신 접종에 이어 집단면역 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막연했던 코로나19 정복이 좀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마스크 뷰티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마스크가 뷰티 트렌드를 바꿔 놓았다. ABOVE THE MASK 라고 하여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유일한 노출인 눈을 강조하고 마스크에 묻어 나오는 현상 때문에 전체 화장은 최소화했다. 즉 마스크가 가려지지 않는 부분인 눈 부위에 집중한 것이다.
다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피부건강 관점에서 보면 자외선에도 해당 부위만 노출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노출되는 해당 부위에 색소가 집중적으로 생겨 병원에 내원하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코로나19 정복이 가까워지면서 발빠른 뷰티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탈(脫)마스크를 예고하고 있다. 사실 탈(脫)마스크의 순간은 현재에도 존재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탈(脫)마스크를 해야 하는 찰나의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



SOLUTION 01

기미색소잡티,맑고 투명한 피부 만들기

주근깨가 갑자기 보이고, 신경 쓰이는 잡티 등의 표피층의 색소는 IPL과 레이저 토닝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어서 민족도가 높다. 까다로운 색소 치료로 치료 효과도 빠르게 나타난다.

한가지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색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색소 종류에 따라 치료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푸석하고 생기없는 피부의 경우는 하이드로 필을 이용하여 정리해 준다. 피지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대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칙칙하고 얼룩덜룩 해진 상태로 전반적인 피부톤 치료가 필요하다면 개인 맞춤으로 밀크필 플러스 치료를 권한다. 밀크필과 연계하여 개인의 피부 고민에 더욱 집중하여 치료할 수 있다.

차앤박피부과가 제안하는 브라이트닝 케어, 망설임없이 탈마스크가 가능한 맑고 투명한 피부 만들기의 시작이다.

SOLUTION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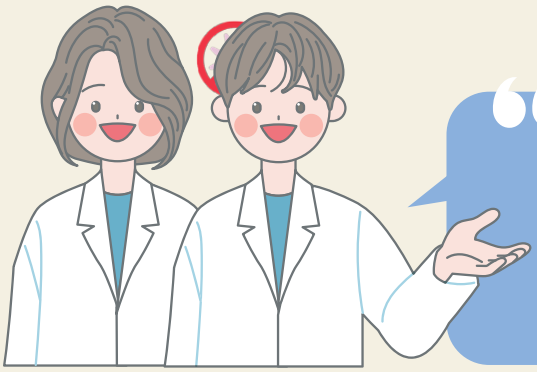
페이스라인 완벽 사수, 언제나 당당하게

요행으로 사각턱과 팔자주름 및 볼 윤곽 처짐을 가렸을지 모르지만 탈(脫)마스크하기 멈짓하는 스스로를 발견했다면 차앤박피부과의 페이스라인 프로그램을 기억하자.

꺼진 부위에 볼륨을 채우고 피부를 당겨 올려주는 필러&실리프팅 프로그램은 팔자주름은 물론 처진 부위를 효과적으로 당겨준다. 여기에 더해 넓어진 윤곽선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초음파 리프팅의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

시술 후에도 티가 나지 않고 효과는 자연스럽게 페이스라인을 정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높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는 V라인 교정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인 사각턱보톡스 역시 여전히 인기다. 언제나 당당하게 페이스라인을 완벽하게 사수하는 방법이다.





고민은 치료하는 시간만 늦출 뿐이다.
개인의 피부 고민에 맞춘 차앤박피부과의 탈(脫)마스크 대비 솔루션에 주목하자.



차앤박피부과 브랜드 병원으로서의 품격,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딘다

광주 차앤박피부과

아늑한 분위기의 광주 차앤박피부과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고요하다. 환자가 들어서면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의 상냥한 목소리만 들릴 뿐 환자들도 접수하고, 대기실에 조용히 자리한다. 뒤이어 내원한 환자들도 약속이나 한듯 같은 동선으로 움직인다. 5주년을 맞이해 방문한 광주 차앤박피부과는 브랜드 병원으로서의 안정감과 편안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요즘이다. 환자들의 피부 관련 정보력은 이미 압도적인 것. 지역이라 더욱 SNS채널이나 미디어, 레이저 장비 최다 보유라는 광고에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개원 초기 통과의례처럼 이러한 고민들이 먼저 다가왔다. 환자들이 피부 문제 해결보다는 유명 레이저 장비나 치료를 마음에 정하고 내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고민이 무엇인지 모르고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는 그 무엇을 찾아 온 것. 브랜드의 명예를 걸고 인내심을 가지고 환자를 설득했다.

“개원 5주년이 되었다는 건 실감나지 않지만 환자의 말걸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세월의 변화를 느낍니다. 개원 초반에는 ‘A 레이저 치료해 주세요!’ 셀프 진단 후 확정해서 말했다면 지금은 ‘제 피부는요.’’ 라고 자신의 피부를 내어줍니다. 어떤 경우엔 30분 넘게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송인국 피부과 전문의는 환자가 스스로 처방 내리지 않는 것. 고민을 풀어 놓고,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귀띔했다.





"직원들에게도 항상 이야기 합니다. 레이저야 언제든 구매할 수 있지만 차앤박피부과라는 브랜드만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초반부터 25년 동안 쌓아 온 임상 노하우를 믿고 하나씩 하나씩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3년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장비보다는 시술 노하우에 대해서 입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피부 고민을 명쾌하게 얼마나 잘 해결해 주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할인정책을 펴지 않은 것도 신의 한수. 개인차가 있는 피부 문제는 어떤식으로든 공장에서 물건 찍어 내듯 시술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치료 방법을 하나씩 설계하듯 진행하는데 할인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디테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 다른 건 몰라도 피부는 한 사람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SNS채널 활동을 재개한 송인국 피부과 전문의는 개원 초기 진료현장에서의 노하우를 포스팅한 내용이 회자되고 지역내에서 그가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들이 유통되는게 의아했다고 한다. 다소 회의감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 남의 것으로는 길게 가지 못한다는 믿음으로 진료현장에서의 기록은 임상에 대한 스터디이기도 하다. 나만의 컨텐츠 이므로 그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다. 우리나라 남부권 유일의 차앤박피부과 병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말이다.

박유경 총괄 실장 MINI INTERVIEW

"광주 차앤박피부과에 오시면 언제나 VIP 1일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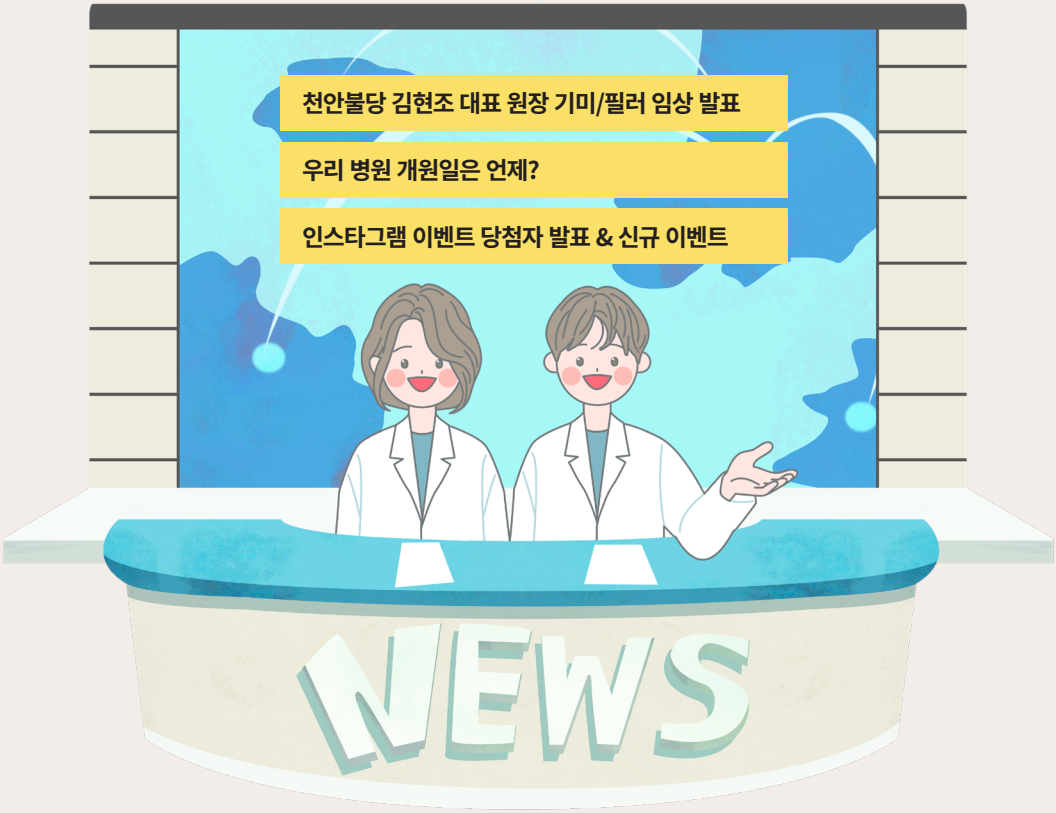
"원장님은 평소엔 편안하고, 유연한데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사사로운 소모품 이나 처치용 제품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세요. 고집스럽다 생각이 들 만큼 환자우선주의죠. 눈감고 치료 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편안함을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보다도 환자들이 원장님의 이 마음을 먼저 알아봐서 기뻤어요."

개원 멤버인 박유경 총괄 실장은 한단계 한단계 정도를 걸으며 광주 차앤박피부과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다. 지금은 신임받는 총괄 실장으로서 직원들에게는 하나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병원의 분위기나 직원들 그리고 환자가 닮아간다는 게 신기해요.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환자들도 너무 편하게 치료 받고 간다고 인사말을 건네고 동행이 있을때도 소근소근 대화한답니다.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에티켓을 너무 잘 지켜요. 물론 우리 직원들도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발걸음을 옮길 때의 발소리마저 신경 쓸 정도에요." 박유경 총괄 실장은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VIP처럼 머물다 가는 곳으로 광주 차앤박피부과가 기억되길 기대한다 .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특별함. 광주 차앤박피부과를 방문하면 VIP 1일이 되는 것이다.

허투루 치료하지 않는 병원, 가면 효과가 확실한 병원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정착한 환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원 채용에서부터 "차앤박스러움"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모두가 행복한 병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박유경 총괄 실장은 강조했다.



차앤박피부과 이모저모



천안불당 차앤박피부과 김현조 대표원장, 코리아더마2021 기미/필러 임상 발표



피부과전문의 1,000여 명과 유관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2021년 춘계 학술대회(KOREADERMA 2021 SPRING MEETING)가 지난 3월 28일 대한피부과의사회 주최로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안불당 차앤박피부과 김현조 대표원장이 기미 치료와 필러 시술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망가진 기미CPR 하기"세션에서 첫번째 연자로 나서 "기미"진단부터 치료까지; 나만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기미 진단의 중요성 및 그동안의 임상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상안면으로 치료하는 여러가지 TOOLS" 세션에서는 마지막 연자로 나서 "이마부터 턱끝까지 자연스러운 볼류마이징;리쥬비엘V하나면 된다"는 주제로 필러 시술법에 대한 노하우 및 상안면을 치료하는 여러가지 TOOLS의 종합편으로 마무리 했다.

“우리 병원 개원일은 언제?”

지난 호에 개원 월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새삼 우리 병원이 진짜 오래되었구나 생각했어요. 각 지역에서 피부주치의로서 길게는 20여년 짧게는 3년여 년을 동고동락 해온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5, 6월에 개원한 병원을 소개합니다. 나의 피부주치의의 시작은 언제 였을까요? 잘 찾아보세요.

- 2004년 천호 (17주년)
- 2006년 목동 (15주년)
- 2013년 일산 (8주년)

5월

- 2016년 광주 (5주년)
- 2018년 안산 (3주년)
- 2005년 평촌 (16주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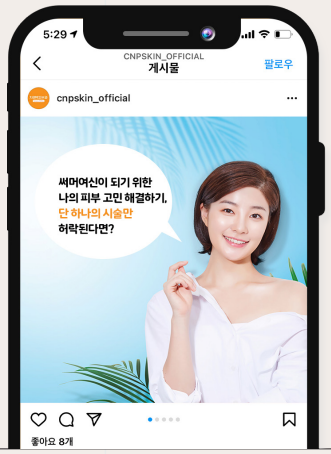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팔로워 EVENT 결과 발표 및 신규 EVENT GOGO

64호 이벤트로 차앤박피부과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리그램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95명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10분을 선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팔로워 수가 늘었고, 여러분의 이벤트 참여도 활발해서 너무나 즐거운 이벤트. 이번 달에도 이어집니다.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01 처음 방문자일 경우에는 팔로워 추가 + #차앤박피부과팬되기 #써머여신 해시태그 필수 리그램

02 재방문일 경우에는 친구 소환으로 차앤박피부과를 소개해주세요. #차친소 해시태그 달고 리그램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 2021년 5월 10일 ~ 6월 30일

발표일 2021년 7월 2일 (금) / 개별 DM 연락

해시태그 #차앤박피부과팬되기 #써머여신 #차친소 를 꼭 넣어주세요.
@cnpskin_official 필수 기재



추첨을 통해 15분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1잔)을 보내드립니다.